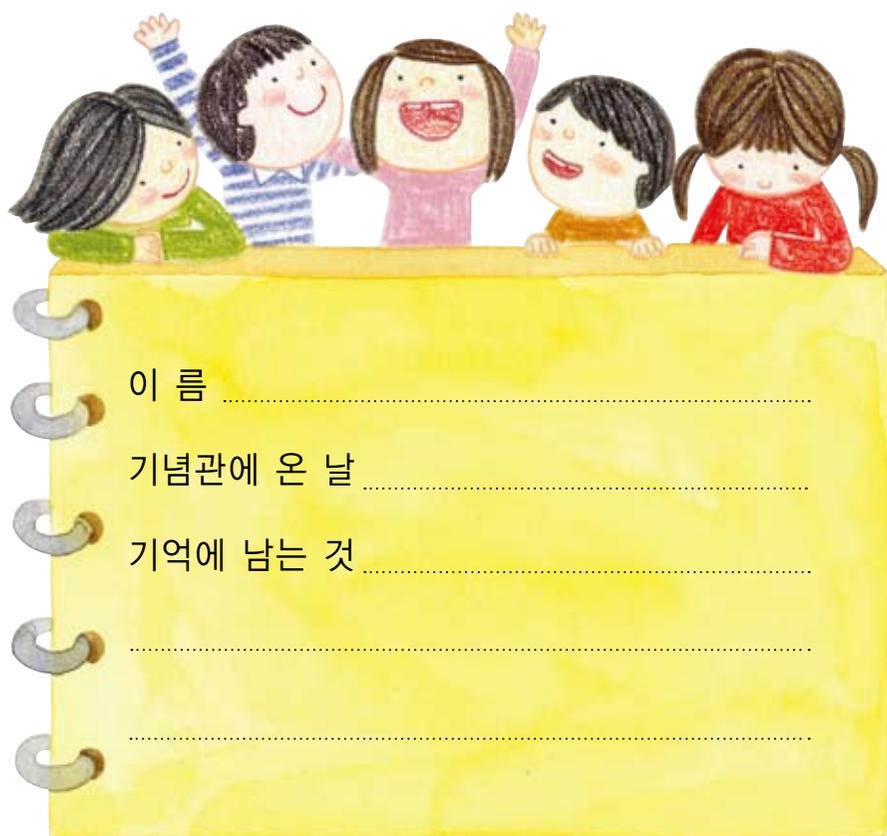




백범김구기념관은?

백범김구기념관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높은 문화를 가진 자주·민주·통일 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일생을 노력하신 거리의 큰 스승 백범 김구 선생 (1876~1949)의 삶과 사상을 널리 알리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2002년 10월 22일 개관하였습니다.

백범김구기념관은 한국의 근현대사와 함께 한 백범 김구 선생의 삶과 사상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리의 문화적 삶의 공간입니다.



이름

기념관에 온 날

기억에 남는 것

.....

.....

백범김구기념관
어린이활동지

김구 할아버지를 찾아서



이 활동지는 백범김구기념관 전시를 보다 쉽게 관람하며,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돕고자 합니다.
이 전시실에서 백범 선생의 걸어오신 길을 함께 걸으며, 아름다운 조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희망을 찾고자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



관람 활동에 도움되기



전시실에서 새롭게 알아가기



영상물 감상하기

1

황해도 시골의 어린시절

1876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김구 할아버지의 어린시절 이름은 창암(昌巖)이었습니다. 어린시절의 김구 할아버지는 굉장한 개구쟁이였지만 9살 때부터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글공부를 시작하였고, 12살이 되었을 때는 양반이 되고자 과거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17살에 황해도 지역의 과거시험을 보았으나, 관직을 돈으로 사고파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 과거공부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김구 할아버지는 관상*책에서 감명 깊은 글을 발견하고, “마음 좋은 사람(好心人)”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애니메이션 '어린시절'을 감상해 봅시다.

 김구 할아버지가 관상책에서 발견하고 크게 감명 받은 글을 적어볼까요?



相好不如身好
상 호 불 여 신 호

身好不如心好
신 호 불 여 심 호

 무슨 뜻인지 적어보세요.

18살이 된 김구 할아버지는 '동학'이라는 종교 활동을 시작한 후, 이름을 창수(昌洙)로 바꾸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동학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한 지역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별명이 '아기 접주*'입니다.

 애니메이션 '동학 · 의병활동'을 감상해 봅시다.

1894년 9월 황해도에서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자 김구 할아버지는 사람들을 이끌고 해주성을 공격하였으나, 일본군과 관군*에 의해 실패하였습니다. 이후, 김구 할아버지는 황해도 청계동 안태훈 진사의 도움으로 고향에 계시던 부모님과 함께 청계동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판단, 실행, 계속

청계동에서 김구 할아버지는 고능선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구 할아버지는 고능선 선생님에게 일을 할 때는 '판단 → 실행 → 계속'의 세 단계로 성취해야 한다는 실천철학과 당시 조선이 처한 상황과 이를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  * 관상 :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의 운명, 성격 등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일
- * 접주 : 동학의 책임자
- * 관군 :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정규 군대

2

국가의 위기와 식민의 시련

김구 할아버지는 1896년 3월 황해도 안악군 치하포에서 조선사람으로 변장한 일본 육군 중위 스킨다를 발견하고, 명성황후를 시해*한 원수를 갚아 나라의 부끄러움을 씻는다는 생각으로 처단하였습니다.

치하포 의거*로 감옥생활을 하게 된 김구 할아버지는 재판에 참여한 일본 관리에게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잘못을 큰 소리로 꾸짖는 등 당당하게 행동하여 주위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매직비전 '치하포 의거'를 감상해 봅시다.

 김구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자주(自主)'의 뜻은 무엇인가요?

自 主

스스로 자 주인 주



김구 할아버지는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죄수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애국정신을 일깨우면서, 우리 백성들도 배워야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발전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생활이 끝난 후에는 황해도 지역에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등 교육 활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25살이 된 김구 할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던 친구들의 권유로 이름을 창수에서 구(龜)로 바꾸게 됩니다.

1905년 일본에게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기고(을사늑약*), 1910년 나라의 권리마저 빼앗기게 되자(경술국치*), 김구 할아버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단체인 신민회에 참여하여 일본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11년 일본이 거짓으로 꾸민 '안악사건'과 '105인 사건'으로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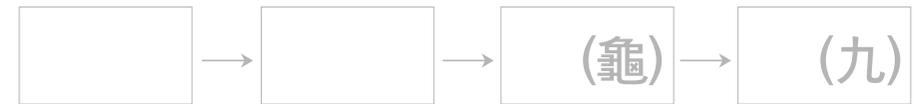
김구 할아버지는 경성 감옥(서대문 형무소)에서 마당을 쓸고 창을 닦을 때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거든, 그 집의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하는 문지기라도 해보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김구 할아버지는 감옥생활을 하는 동안 독립에 대한 의지를 더욱 다지고자 이름을 '구(九)', 호를 '백범(白凡)'으로 바꾸었습니다.

 매직비전 '옥중일화'를 감상해 봅시다.

 자, 그럼 김구 할아버지의 호 백범(白凡)은 어떤 뜻인지 알아보을까요?

백정*(白丁) + 범부*(凡夫)

김구 할아버지의 이름이 변한 순서대로 적어봅시다.



-  * 시해 : 부모님이나 나라의 중요한 사람을 돌아가시게 함
- * 의거 : 정의를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의로운 일을 함
- * 을사늑약 : 1905년에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하여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5적과 맺은 외교적 약속으로, 광무황제(고종)가 직접 문서에 어새(御璽, 황제의 도장)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에 따라 무효이다.
- * 경술국치(庚戌國恥·한일병합조약) : 1910년(경술년) 8월 22일 대한제국은 일본에 의해 국권을 강제로 빼앗겼다. 8월 29일 발표 되었다.
- * 호(號) : 본명 이외에 세상에 널리 드러난 이름
- * 백정(白丁) : 돼지나 소를 잡는 직업으로, 당시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
- * 범부(凡夫) : 평범한 사람

3

문지기의 길, 민족운동 속으로!

1919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하이(上海)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간 김구 할아버지는 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임시정부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무국장*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내무총장을 거쳐 지금의 대통령에 해당하는 국무령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하나 둘 임시정부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독립운동을 할 자금도 없던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김구 할아버지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독립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어린 두 아들에게 자신이 걸어온 길을 날마다 조금씩 유언 남기듯 적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범일지*』(白凡逸志)입니다.

! 김구 할아버지께서 직접 쓴 백범일지를 찾아보고, 책의 표지를 완성해 주세요.



? 백범일지는 우리나라 보물 제 _____ 호입니다.

김구 할아버지는 임시정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동포들에게 지원과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독립운동의 힘을 모으기 위해 한민애국단을 만들고,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계획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민족에게 조국 독립의 의지와 신념을 심어주었고, 전 세계에 우리가 얼마나 독립을 원하는지 알리게 되었습니다.

🎬 매직비전 '이봉창·윤봉길 의거'를 감상해 봅시다.

? 한민애국단에서 활동한 이봉창·윤봉길 의사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리해 봅시다.



이봉창 의사

_____년 _____월 _____일



윤봉길 의사

_____년 _____월 _____일

- * 대한민국 임시정부 :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중국의 상하이에서 수립되었다.
- * 백범일지(白凡逸志) : 김구할아버지가 어린시절과 임시정부의 활동,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
- * 일지(逸志) :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이야기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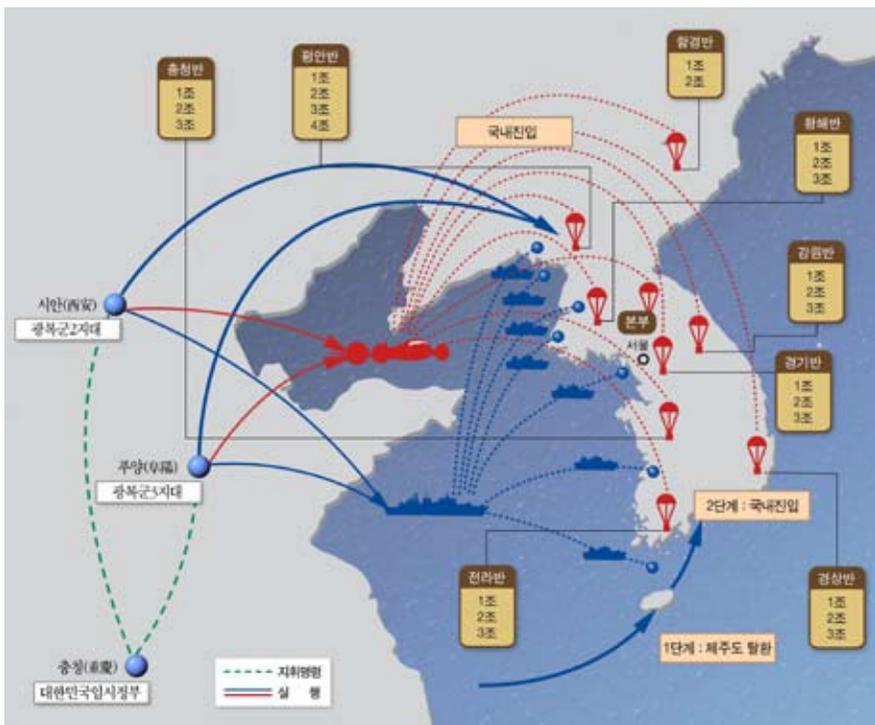
4

자주독립과 한국광복군

이봉창·윤봉길 의사 의거 후 김구 할아버지는 한민애국단의 대표로 의거를 계획한 것이 자신임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중국 상하이에 머물 수 없게 된 김구 할아버지는 8년 동안의 이동생활을 하게 됩니다.

긴 이동생활 끝에 충칭(重慶)에 도착한 김구 할아버지는 임시정부의 조직을 당(黨), 정(政), 군(軍)으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임시정부의 군대인 한국광복군을 만들고, 서로 생각이 달라 임시정부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좌우 연합정부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김구 할아버지는 임시정부의 주석*(主席)으로 선출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 한국광복군의 활동에 대해 알아보시다.



1941년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키자 김구 할아버지는 곧바로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날 경우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광복군이 직접 우리나라로 진입할 작전을 구상하고, 이를 위해 미국 전략첩보기구인 OSS와 공동작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한국광복군은 1945년 8월 20일에 우리나라로 진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8월 6일과 9일에 일본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더 이상 싸우기 힘들었던 일본이 예상보다 빨리 연합군에 항복하게 되면서 국내진입작전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광복군의 독립을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자주(自主)적으로 이루기 위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우리민족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 일본의 항복소식을 듣게 된 한국광복군, 우리가 한국광복군이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 주석 : 나라의 최고 자리, 지금의 대통령과 같음
* 선전포고 :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는 일

5

조국에 돌아와서

1945년 12월, 조국을 떠난지 27년만에 돌아온 김구 할아버지는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한다는 이유로 북위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삼기로 하였고, 결국 이 선으로 나라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김구 할아버지는 분단의 위기에 놓인 조국을 통일 독립국가로 건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48년, 남한과 북한에 각각 단독정부가 수립되었고, 김구 할아버지는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에서 육군 소위 안두희가 쓴 총탄에 맞아 조국통일의 소원을 간직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백범학원생 일동이 남긴 추모*의 글을 보고 여러분도 김구 할아버지께 짧은 편지를 써봅시다.

“할아버지 이렇듯 변을 당하시와 갑자기 가슴이 뚫히니 원통하기 더욱 끝이 없나이다.
할아버지 그러나 저희 어린 것들은 가슴속 깊이 깊이 맹세하옵니다.
그 성스러운 뜻을 받들겠다고,
할아버지 님의 떠나신 그 훈령이나마 하늘에 길이 안식하소서
어리오나 저희 사백여 백범이 또 있사오니”



* 무장 : 전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 또는 그 장비

* 경교장 : 백범 김구선생의 집(사적 제 465호) * 추모 :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하며 생각함

김구 할아버지는
어떤 삶을
사셨나요?



- 1876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남
- 1887 양반이 되기로 결심하여 공부 시작
- 1892 마음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
- 1894 황해도 동학농민군의 선봉장이 됨
- 1896 치하포 의거
- 1903 황해도에서 교육사업 시작
- 1907 국권회복을 위한新民회에 가입하여 황해도 총감으로 활동
- 1911 안약사건으로 감옥생활
- 1915 출옥 후 농민계몽운동
- 1919 3·1 운동 후 중국 상하이(上海)로 망명
임시정부의 경무국장, 내무총장, 노동부총판, 국무령 역임
- 1931 한민애국단 조직
- 1932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거로 위기의 독립운동을 되살림
- 1940 한국광복군 조직, 본격적인 군사활동 전개
- 1941 일본에 선전포고
- 1945 미군과 국내진입작전 준비
환국
신탁통치 반대운동 주도
- 1948 남북한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협상 참여
- 1949 6월 26일 서거